

이상의 일본어 창작 노트와 조선어로의 고쳐쓰기- 성천기행문을 중심으로

아이카와 타쿠야 (도쿄대 박사과정)

1 들어가며

이상(1910~1937)은 1931~1932년의 일본어 시 등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조선어로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다. 이상의 사후, 친분이 있었던 작가들에 의해 유고로서 「실화」(『문장』1939년 3월호)와 같이 중요한 텍스트가 발표되기도 했으나, 식민지기 사이에 발표된 그러한 유고들도 역시 모두 조선어였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60년에 이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어 문장이 적힌 노트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면서부터였다. 이 노트는 이연복이라는 청년으로부터 비평가인 조연현의 손에 전달된 것으로, 내용을 조사한 조연현에 의해 이상의 친필로 인정되어, 이후 단속적으로 이 노트에 기록된 문장이 조연현 주간의 『현대문학』 등의 한국의 문예지에 한국어 번역으로 발표되었다<sup>1</sup>. 그러나 조연현으로부터 직접 노트를 받아 본 김구용이 이 노트의 목차를 작성했던 것이 자료로서 남아있을 뿐, 현재 이 노트는 행방불명이 되어 일본어 원문은 사진판이 남아 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sup>2</sup>.

이상의 일본어 노트를 둘러싸고서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자료적인 한계가 있다. 이 노트에 적힌 원고를 이상이 생전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창작을 위한 초고와 습작에 준하는 텍스트였던 것으로도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특히 산문에 있어서 조선어의 세계에서 활동했었던 이상의 창작 과정에 일본어라는 이(異)언어의 개입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노트는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초고가 이상이 1935년에 방문했었던 평안남도 성천에의 여행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은 성천 여행경험을 소재로, 「山村餘情: 成川紀行中の 몇 節」(『매일신보』1935년 9월 27일~10월 11일)과 「倦怠」(『조선일보』1937년 5월 4일~12일. 유고, 도쿄에서 집필)라는 두 개의 조선어 텍스트를 남겼다. 게다가, 이상의 일본어 노트(이하, 「창작 노트」)에는 이 두 편의 초고가 된 글이 수 편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성천 여행기와 그에 따라 탄생한 텍스트 군(群)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있다. 이상의 성천 경험에 대해서 가장 총망라하여 정리한 김주현은, 성천 여행의 내실이 남겨져 있는 텍스트 및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 검증하면서, 「산촌여정」과 「권태」의 조선어 표현의 특징을 각각 은유와 환유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성천

<sup>1</sup> 노트의 발견경위에 대해서는, 趙演鉉 「李箱의 未發表遺稿의 發見」 『現代文學』 1960년 11월호, 163쪽 참조.

<sup>2</sup> 일본어 유고 노트의 현재상황, 김구용 작성의 목차 및 한국어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수 「이상 시학의 밀실로 가는 열쇠, 「애야(哀夜)」」 이상문학회 편 『이상수필작품론』 서울: 역락, 2010년을 참조.

경험이 계기가 된 이상에 의한 모더니즘적 수사학의 성취로서 평가하였다<sup>3</sup>. 이경훈은 「산촌여정」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징에 「식민화를 첨예하게 실천하는 주체로서, 그 식민화의 대상에도 있는 한 명의 문학자<sup>4</sup>」라고 하는 식민지 모더니스트로서의 이상의 미묘한 위치를 간파하여, 그러한 자기가 선 위치를 위협하는 도쿄라는 종주국의 수도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권태」라는 텍스트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논했다. 또 방민호도 이상의 성천 관련 텍스트를 「산촌여정」과 「권태」의 두 가지의 계열로 분류하여, 사지(死地) 도쿄에서 씌어진 「권태」에서 결실을 맺은 이상의 세계인식을 사상적으로 자취를 더듬어 확인했다<sup>5</sup>.

본 발표의 시도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즉, 이상의 창작노트에 남아있는 글과 「산촌여정」 및 「권태」의 두 개의 텍스트를 대조해보면서, 그 표현의 특징과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자료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텍스트를 대조할 때 가능한 경우에는 사진판을 기본으로 일본어 원문을 복원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창작 노트에 초고로 씌어진 표현을 조선어로 고쳐 쓴다(다시 쓴다)는 이상의 창작 현장에서 행해진 조작에 착목하여 분석하겠다. .

## 2 「산촌여정」 — 의식되는 모던

이상의 성천여행은 1935년의 8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sup>6</sup>. 그 성천 체재 중에 씌어져 경성의 매일신보사로 보내졌던 원고가 9월 27일~10월 11일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산촌여정」이었다. 이상의 이 여행의 배경에는 그 자신의 실연과 카페 경영의 실패, 가족의 곤궁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경험이 성천 관련 텍스트가 가지는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창작노트에 수록된 「제 1의 방랑」서두 부분은, 그 여행의 출발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열차에 함께 탄 남자에 대한 필자 「나」의 불쾌감이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다.

오랜만에 되돌아왔던 경성은 그림다고 [「그」는] 말한다. 경성을 떠나고 싶지 않다. 카페, 그리고 분가루의 냄새도 가득한 바(bar-역자삽입) 등은 실제로 몸에 물들어있다고 말한다. 통화 [通化, 구 만주국, 현재의 중국·길림성에 있는 시. 글 속의 「그」의 근무처가 있다]는 시골이니까 오락기관—그의 말에 따르면—따위는 아예 없어서 쓸쓸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말에 일일이 수궁해 보였다. 사실 나는 그 방면의 것은 잘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가 자주 그것 등에 관한 고유명사를 열거해 나가서 나를 놀라게 하거나 또 나아가 그 분야의 종사자인 나보다도 이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써 그의 본디부터의 난봉꾼 기질에 매우 다디단 우월감을 느끼려는

<sup>3</sup> 김주현 「이상 문학에 있어서 성천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2 권 제 1 호, 2001 년.

<sup>4</sup>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서울: 소명출판, 2000 년, 314 쪽.

<sup>5</sup> 방민호 「『돌아갈 수 없는 방랑』의 근거와 논리: 이상의 수필 「권태」」 이상문학회 편, 앞의 책.

<sup>6</sup> 상세한 여정의 추정에 관해서는, 김주현, 앞의 글, 82~84 쪽을 참조.

속셈이 있는 듯하지만 나는 또 나로서 실제 그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에 솔직하게 경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

집을 나올 때, 나는 역에서, 또 기차 안에서 누구와도 우연히 안 만났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역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이 까닭모르는 여행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는 기차 안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기를 원했다.<sup>7</sup>

경성을 상징하는 「카페」와 「바」라고 하는 「오락기관」에 대해 말하는 「그」의 말에, 「나」는 압도되면서도 혐오감을 품었다. 「이 까닭모르는 여행」에 대해 「나」는 경성의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나」에게 「그」는, 「여행에는 길동무」같은 것을 하면서 계속 말을 건다. 「나」는 피로에 시달려, 「그저 잘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밖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sup>8</sup>」라고 기록해두었다.

이처럼 경성에 대한 혐오감이 「나」의 여행의 출발을 특징짓고 있었으나, 성천 체재는, 「나」의 고향인 경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같은 글 「제 1의 방랑」의 말미의 부분에서, 「나」의 책상 위에 날아 내려온 한 마리의 귀뚜라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다.

이 귀뚜리는 지독한 厭世家인지도 모른다. 램프의 位置는 어찌면 그 화려한 自殺場所로서 選定된 것이나 아닐지.

[...]

죽어선 안된다. 서울로 돌아가라. 서울은 시방 가을이 아니냐. 그리고 모든 애매미들이 한껏 아름다운 목청을 뽑아 노래하는 季節이 아니냐.

서울에선 아무도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 말인가. 그래도 좋다. 어쨌던 너는 서울로 돌아가라. 그리고 노래해 보게나. 그리하여 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삶의 새로운 意義와 光明을 발견하게나. 考案해 보게나.<sup>9</sup>

「서울」에서 발견되리라고 기대되는 「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삶의 새로운 意義와 光明」이라는 표현에서, 저자 「나」의 심정이 솔직하게 투영되어있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창작 노트에 써어있던 것 중에는, 여행의 출발부터 성천에서 품은 감회까지를 묘사했던, 현존하는 제일 잘 정리된 문장인 「제 1의 방랑」은 이같이 「나」의 심정과 내면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어로 된 「산촌여정」은 성천에서 경성으로 원고를 보낸다고 하는 행위에서 촉발된

7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년, 450쪽, 원문 일본어. 원문은 일본어판 발표문을 참조.

<sup>8</sup> 위와 같음.

9 李箱(柳耑 역) 「첫번째 放浪」 『文學思想』 1976년 7월호, 198~199쪽. 韓国語訳より相川が再翻訳. 李箱(柳耑 역) 「첫번째 放浪」 『文學思想』 1976년 7월호, 198~199쪽.

것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요컨대 「산촌여정」의 텍스트 전체는, 「都會」에 있는 「鄭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설정으로 씌어진 것이다. 그 서두는 아래와 같다. 香氣로운MJR[“MJB”(커피 상표)의 오식]의味覺을니저버린지도二十餘日이나됩니다. 이곳에는新聞도잘아니오고遞傳夫는있다금 『하도롱』 빗消息을가져옵니다. 거기는누에고치와옥수수々의事緣이적혀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은멀니 [설]어저사는一家 [재]문에愁心이生것나봅니다. 나도都會에남기고온일이걱정이됩니다.<sup>10</sup>

저자 「나」는, 커피의 「味覺을니저버린지」 이미 오랜 기간을 성천에서 보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서두에 따르면, 성천은 신문과 우편 등 근대의 정보 미디어망의 변경(邊境), 커피의 「味覺」에서 상징되는 「都會」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장소로 자리매김된다. 그러나 그 정보 미디어망의 변경에 「이따금」 가져오게 되는 「消息」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도, 「愁心」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그 「愁心」에의 반응으로서 「나」는, 「『파라마운트』會社商標처럼 생긴 都會少女가나오는 [똥]을조끔 [똥]니다. 그리다가 어느사이에 都會에 남겨두고온가난한食口들을 [똥]에봅니다<sup>11</sup>」라는, 우편이라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都會」 쪽으로 답변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편제상의 설정은, 창작 노트에 남겨진 글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제1의 방랑」에서 나타났던, 귀뚜라미에게 가탁했던 심정의 토로와는 달리, 「산촌여정」에는 (「경성」과 「서울」 등의 고유명을 가지지 못한) 「都會」에 대한 저자 「나」의 「愁心」이, 텍스트의 형식에 의해 구조화 된 것이다.

다음, 「산촌여정」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보고자 한다. 이미 인용했던 부분의 내용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논자 역시 지적했던 것처럼, 「산촌여정」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농촌을 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都會」적이고 (당시 유행어에 따르면) 「모던」한 어휘가 자주 나타난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초출지면에 있어서 『』가 붙어져 있다). 호바꽃에 다가오는 꿀벌은 「『스파르타』式」이고 그 색깔은 「『세실·B·데밀』의 映畫처럼 華麗」하며 그 날개 소리는 「『르넷산스』應接室에서들니는 扇風機<sup>12</sup>」로 비유된다. 「풋김치의 淸新한味覺」은 「眼藥『스마일』을 聯想식합니다<sup>13</sup>」고 서술되며 마을 처녀들은 「『고々아』 빗입설」을 가지고 「『하도롱』 빗」 광택을 띤 「M百貨店 『미소노』化粧品 『스위트 [시커리]』이 신은양말」과 「[세고기]갓흔小麥빗<sup>14</sup>」 살결이라고 묘사된다.

10 李箱 「山村餘情: 成川紀行中の 멧 節」 김주현 주해 『증보 정본 이상문학전집』 3, 서울: 소명출판, 2009년, 45 쪽.

11 같은 글, 47 쪽.

12 같은 글, 49 쪽.

13 같은 글, 52 쪽.

14 위와 같음.

이러한 표현은 「산촌여정」의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창작노트 안의 「어리석은夕飯」(원문불명)에도 유사한 표현이 일부 시도되었다. 식사 후, 도로에 인접한 집의 대청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양이 「開港場」에 비유되어, 그들이 만들어내는 떠들썩함이 「豪華로운 스포오즈다<sup>15</sup>」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日光 아래서 고오드방처럼 村處女の 皮膚는 艷艷히 빛났다<sup>16</sup>」라고 하는 표현도 볼 수 있다. 「산촌여정」에서의 과잉적이기까지 한 「都會」적 비유표현은, 「어리석은夕飯」의 시도를 철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쳐쓰기에 있어서 어휘의 조작은, 「쓰기」라고 하는 행위를 전경화한 편지라는 텍스트 전체의 설정과 함함으로써, 「쓰기」의 주체로서 항상 「都會」적인 말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都會」인으로서의 저자 「나」의 존재를 부상시킨다.

이 「都會」인으로서의 저자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산촌여정」에서의 이상이 「조선에서 태어나 식민지적으로 교육 받았으며 다중 언어적인 도시 거주 작가라는 그의 개인적 정체성을 개척했음<sup>17</sup>」이라는 존 프랭클의 지적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확실히, 활동사진회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에 대해 「蓄音機압해서 고개를갸웃거리는데北極 『벙근』 새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닛가<sup>18</sup>」라고 쓰고, 「愚昧한 百姓들<sup>19</sup>」이라고 그/그녀들을 거리낌없이 부르는 저자 「나」의 말은, 마을사람들과의 사이에 보는/보여지는, 그리고 그리는/그려지는 표상행위를 둘러싼 일방적인 관계를 전제한다<sup>20</sup>. 또한, 이러한 표상의 역학 안에서 「都會」적인 다량의 언어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글쓰기에는, 식민지의 모더니에 깊이 침식된 저자의 의식 상태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저자의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촌여정」은, 마을의 활동사진회를 그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성천의 근대적인 측면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창작 노트에 남겨진 글에서도 똑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어리석은夕飯」의 다음 구절이다.

그러나 그 中에도 白面의 靑年이 있어 이 村落의 崇高한 敎養을 攪亂한다. 輕蔑해야 할 작자다. 그런 白面들은 나이트까운을 입기도 하며, 머리에 포마아드를 바르기도 하며,

---

15 李箱 「어리석은夕飯」 『現代文學』 1961년 1월호, 253 쪽.

16 同前、260頁。 위와 같음、260 쪽.

17 존 프랭클 (이경훈 역) 「영역 표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항하는 「산촌여정」의 글쓰기」 이상문학회 편, 앞의 책, 20 쪽.

18 「山村餘情」, 57 쪽.

19 위와 같음.

20 광장의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려다본 위에 「勿論 나도 그愚昧한 百姓中の 하나일수밖에업섯습니다마는」 ( 「山村餘情」, 58 쪽)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링을 키기도 하며, 新聞을 읽기도 하면서, 村 사람을 얼떨떨하게 만든다.<sup>21</sup>

앞서 본 「제 1 의 방랑」에서 경성의 「오락기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남자처럼, 이 글의 저자도, 농촌에 있으면서 모던하고 「都會」적인 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白面の 青年」에 대해서 「輕蔑」를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산촌여정」에서는 (그리고 이 뒤에 볼 「권태」에서도) 이러한 「白面の 青年」의 존재는 소거되어있다. 그 대신에 보이는 것이, 「生徒들은 글을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熱心히簡單한算術을노아 그들의 正直과淳朴을智慧와 狡猾로 換算하고있습니다. 嘆息할利算術이 아니 겠슴닛가<sup>22</sup>」라는 간이학교(2 년제의 초등교육기관) 생도들에 대한 기술과, 「내가있는 건너편 客主집에는都會風女人도 왓나봅니다<sup>23</sup>」라고 하는 보고이다. 여기서 저자 「나」는, 말하자면 교육수준과 계급, 그리고 젠더의 면에서, 「나」의 「都會」성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만을 쓴다는 고쳐쓰기의 전략에 의해, 마을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표상을 둘러싼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嘆息할」이라는 생도들을 향한 말은, 저자가 일방적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하려는 위치를 과시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산촌여정」이라고 하는 텍스트 전체가 「鄭兄」이라는 수신인을 명시한 편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설정은, 저자가 마을 사람과의 사이에 일방적인 표상관계를 구축하면서 마구 쓰는 「都會」적인 단어와 표현은, 그것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대를 향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텍스트 안의 「鄭兄」, 혹은 「都會에 남아있는 몇孤獨한 『편』<sup>24</sup>」과 지명된 도시의 지식인(남성)끼리의 버추얼한 공동성을, 이 텍스트 자체가 구축하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산촌여정」은 쓴다는 행위에 의해 「都會」와 「산촌」을 쌍형상화하여, 「都會」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버추얼한 공동성 안에 저자를 위치시키려는 미디어로서의 텍스트라는 것이다. 일본어로부터의 고쳐쓰기에 따라 탄생한 이 「都會」의 언어의 과잉은, 조선의 「산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항상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식민지 지식인의 의식의 존재 양상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권태의 극

이상은 1936 년 가을에 도쿄에 건너가, 도쿄라는 도시에 대해 커다란 환멸을 맛보게 되었다. 본 발표의 전반에 그 극히 일부를 검토했으나, 이상의 도쿄에서의 경험과, 다름아닌 그 도쿄에서 「권태」가 썩어진 것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상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상의 도쿄경험에 대해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역시 여기서도 「권태」와 창작 노트의 기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보이게 되는, 고쳐쓰기에 있어서 언어의 움직임과 그 의미에 대해

21 「어리석은 夕飯」, 254 쪽.

22 「山村餘情」, 56 쪽.

23 같은 글, 57 쪽.

24 위와 같음.

생각해보고자 한다.

「권태」는, 이상의 유골이 조선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朝鮮日報』에 발표된 유작이다<sup>25</sup>. 텍스트의 말미에는 「十二月十九日未明, 東京서<sup>26</sup>」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텍스트가 결말을 가진 하나의 작품으로서 씌어졌다는 것이 추정된다. 게다가 이 텍스트를 쓰는 행위가 행해졌던 시간과 장소의 표시는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되어, 이 쓰는 행위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를 명백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僻村<sup>27</sup>」(「성천」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있는 「나」를 도쿄에 있는 「나」가 그린다는 텍스트의 구성요소가 「문장의 주어로서의 「나」와, 그 문장을 글로 엮어쓰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와의 분열을, [...] 텍스트 전체의 형태로서 명시하고 있다<sup>28</sup>」는 것이다. 이 쓰는 주체와 씌어지는 대상의 분열이 작용함으로써, 「권태」의 문체는 창작 노트에 남아있는 글이나 「산촌여정」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 되었다.

다음의 인용은, 창작 노트에 수록되어있는 「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라」라고 하는 글의 일부이다.

나는 해양과 같은 지루함의 안에서 해엄치고 있다. 지느러미는 미온(微温) 안에 있다.

아이들이 소리지르면서 이 나의 ~~가수상태(假睡狀態)의 지루함을~~ ~~뱉어버렸다~~ 유쾌한 졸음을 남김없이 교란해 버렸다. 나는 놀랐다. 2, 3인의 적갈색화한 남자 아이다워 보이는 아이들이 내가 멈춰서 있는 곁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저물어가는 모색(暮色)이 그들 사체(死屍)와 같은 불결을 덮으려고 한다.<sup>29</sup>

「지루함」의 안을 해엄치는 것 같은 「졸음」 혹은 「가수상태(假睡狀態)」부터, 노는 아이들의 기미에 따라 잠에서 깬 「나」는, 「그들을 깜짝놀라게 할 특이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싫증나버려」 「무의식적으로 어찌할바를 몰라<sup>30</sup>」하는 아이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양손을 서로 다르게 늘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한 곳에 멈추어서 몸을 비틀어지게 하기도 하면서」라는 「완전히 율동적이지 않은 몸짓」과, 「어떤 품사에도 속하지 않는 기묘한 괴성을 지르고 거의 자포자기에 허둥대<sup>31</sup>」고 있다. 이렇게 적어둔 「나」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기술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매우 어리석은 유희를 멈추지 않는다. 참, 이러하니 이 아이들이 정말로 발광하는 것은 아닐까.

---

25 발표경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37년 5월 9일 참조.

26 李箱 「倦怠」 김주현 주해, 앞의 책, 128 쪽.

27 위와 같음, 115 쪽.

28 小森陽一 「自意識過剰からの出口: 李箱の文学における言葉の切っ先」 崔真碩編訳 『李箱作品集』 付録, 東京: 作品社, 2006년, 8~9 쪽.

29 김윤식, 앞의 책, 459 쪽, 원문일본어.

30 위와 같음.

31 위와 같음.

지루함, 심심함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부상보다도 인간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것 같다. 지금의 나 자신을 보라. 나는 어쩌면 내부에 있어서 이미 살리지 못할 정도까지 발광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sup>32</sup>

여기서 저자는, 「지루함」과 「심심함」이 「인간」을 「발광」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아이들로부터 「나」 자신의 「내부」에로 시점을 이동시켜서 쓰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꽤 유사한 부분은 「권태」에도 나타난다. 「권태」에는, 마을의 풍경과 그곳에서 사는 마을 사람의 일생이 「單調한倦怠一色으로 塗布된것<sup>33</sup>」이라 묘사되고, 아이들도 「나처럼 一擧手一投足を어찌하얏으면 조흔까 당황해하고있는 倦怠들<sup>34</sup>」로 지명되어있다. 그것에 비해 창작 노트에는, 원문이 확인가능한 한에서는, 「권태」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 것에 주의하고자 한다. 다음의, 창작 노트에 있는 「야색(夜色)」이라는 글의 한 구절도 위와 마찬가지로이다.

한번에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다. 차라리 공포에 가까운 것이다. 달이 없는 밤하늘은 바다도 알 수 없는 귀기(鬼氣)를 가득 담아 커다란 음향의 안에 있는 듯하다. 마을 사람의 식사 후의 잠담을 멀리서 들으면서 때때로, 이 방대한 공포에 위협되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

야색(夜色)는 지루한 경치를 한층 더 지루하고 혼연한 것으로 만들며, 게다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방대한 공포의 잔디밭을 내장하고 이렇게 우매한 자연에 대하여 나는 언제까지나 털끝 정도의 친밀함조차 발견할 수 없다. <sup>35</sup>

이러한 기술은, 「권태」에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고쳐써져 있다.

마당에서 밥을먹으면 머리우에서 그無數한 별들이 야단이다. 저것은또어찌라는것인가. 내게는 별이 天文學의 對像될수업다. 그러타고 詩想의對像도아니다. 그것은 다만 香氣도觸感도업는 絶對倦怠의 到達할수업는 永遠한彼岸이다. 별조차가 이러케승겁다.<sup>36</sup>

여기서도 「야색(夜色)」에 그려진 것은 밤의 어둠에 가라앉은 「지루」한 「광경」이고 「권태」에서의 밤하늘은 손 댈 수 없는 「絶對倦怠」의 「永遠한彼岸」이라고 씌어졌다. 창작 노트의 한국어 번역에는, 여기까지 지적된 「지루함」이라는 말이 전부 「倦怠」혹은 「권태」로 번역되어있다. 이 밖에도 일본어 원문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도 「倦怠 / 권태」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이 있으므로<sup>37</sup>,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나, 이상이 도쿄에서 「권태」를 쓰려고 했을

32 김윤식, 앞의 책, 459 쪽, 原文日本語。 김윤식, 앞의 책, 459 쪽, 원문일본어.

33 「倦怠」, 118 쪽.

34 같은 글, 122 쪽.

35 김윤식 엮음『李箱문학전집』3, 서울: 문학사상사, 1993 년, 340 쪽, 原文日本語。 김윤식 엮음『李箱문학전집』3, 서울: 문학사상사, 1993 년, 340 쪽, 원문일본어.

36 「倦怠」, 127 쪽.

37 예를 들면, 「어리석은 夕飯」에는 「이 倦怠 바로 그것인 土地」라고 표현이 보여진다. 「어리석은



때, 이 「권태」라는 단어를 상당히 의식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 「권태」라는 텍스트에는 다양한 표상이 「권태」라는 단어에 덧씌워져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태」라는 텍스트에서, 「권태」라는 낱말은 단순한 정신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의 표현에서처럼 경치에 마치 페인트처럼 「塗布」되거나, 「倦怠들」 혹은 「倦怠의 왜小人間<sup>38</sup>」과 같이 마을의 아이들의 호명에 사용되거나, 「끗업는倦怠가 사람을掩襲<sup>39</sup>」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더욱이, 「소는 食欲의즐거움조차를 冷待할수잇는 地上最大의獸怠者다. 얼마나 倦怠에지질렷길래 이미 胃에들어간食物을 다시게워 그시금털털한半消化物의味覺을 逆說的으로享樂하는체해보임이리오?<sup>40</sup>」라는 블랙 유머의 소재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방법은, “ennui”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번역어로서 다이쇼 시기 이래 일본 지식계에서 유통되었던 「권태」라는 한자어<sup>41</sup>를, 그 용법과 의미가 흔들릴 정도까지로 남용하는 것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데카당스적 정서와 분위기를 희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권태」라는 텍스트의 저자는, 「산촌여정」의 저자가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했던 식민지 모던이라는 해석공동체와는 다른 장소에 있다.

現代人の 特質이오 疾患인 自意識過剩은 이런 倦怠치 안홀수업는 倦怠階級の 徹底的한 倦怠로말미암음이다. 肉體的閑散 精神的倦怠이것을 免할수업는 階級이 自意識過剩의絶頂을表示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울가에안즌나에게는 自意識過剩조차가 閉鎖되었다.

이러케閑散한데 이러케 極度の倦怠가잇는데 瞳孔은内部를向하야얼리기를 躊躇한다.<sup>42</sup>

「現代人」, 혹은 「산촌여정」에서의 「都會」인을 「倦怠階級」으로 대상화한 위에, 이제 「나」의 육체(「동공」)가, 그 「階級」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극도의 권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自意識過剩」이라는 병으로 이어가지 못한 「나」의 1 일은, 「모든것에서 絶緣되 지금의 내生活—自殺의端緒조차를 차즐길이업는 지금의 내 生活은 果然 倦怠의極 倦怠그것이다<sup>43</sup>」라고 회고되는 것이다. 「倦怠」에 따른 「自意識過剩」을 거쳐

---

夕飯」, 254 쪽.

38 「倦怠」, 126 쪽.

39 같은 글, 121 쪽.

40 같은 글, 124 쪽.

41 구마가이 타카시는 어떤 대답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이부세 마스지, 다자이 오사무 등의 문학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역(大逆)사건을 계기로 “ennui”의 번역어로서 「권태」라는 말이 지식인 사이에 널리 퍼져, 차차 속류화·대중화했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熊谷孝『井伏鱒二：講演と対談』東京：鳩の森書房、1978년、130~133 쪽.

42 「倦怠」, 121 쪽.

43 같은 글, 127 쪽.

「自殺」로 이어가는 「現代人」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지금의 내 生活」이, 「倦怠의極 倦怠그것」으로 의미를 부여된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까지가야끝이날지 모르는來日 그것이또窓박게登待하고잇는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잇슬뿐이다<sup>44</sup>」라고 하는 「나」의 신체적 반응은, 「現代人」을 상징하는 「自意識過剩」이 「閉鎖」된 「倦怠의極」에서, 저자 「나」의 주체의 위기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성천에서 일본어로 씌어진 창작 노트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어로 씌어진 「산촌여정」을 도쿄에서 다시 조선어로 고쳐쓰는 행위에 즈음하여, 이상은 「권태」라는 한자어를 텍스트를 통괄하는 말로서 선택, 「倦怠의極」에 있어서 「現代」로부터의 소외와 그것에 동반한 주체의 위기를 그려내었다. 농촌에서의 「권태」를, 그 「極」에 다다르기까지 그려내는 「권태」라는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고쳐쓰기는, 「산촌여정」에서 꿈꾸었던 「都會」적인(그리고 식민지적이기도 한) 호모 소셜리티가 도저히 기능할 수 없는 것 같은 장소로서의 도쿄에, 이상이 도달해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마치며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상은 1935년의 성천 여행 경험을 일본어로 적어두고 그것을 조선어로 고쳐쓰는 것으로써, 「산촌여정」과 「권태」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텍스트를 새로 만들어내었다. 두 개의 조선어 텍스트는 제각기 독자적인 언어, 문체,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본 발표에서는 일본어 초고의 원문을 가능한 한 복원·이용하여, 그 고쳐쓰기라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접근을 시도했다.

경성의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이상에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신선해 하지않았던 성천이라는 농촌에서의 경험이 우선 「산촌여정」이라는 기행문 풍의 텍스트에서 결실을 맺었다. 「산촌여정」은, 쓴다는 행위 그 자체에 따라서 「都會」와 「山村」이라는 영역을 대립적인 것으로서 구획하면서, 「都會」에 있어서 호모 소셜한 해석공동체를 구상하려는 텍스트였다. 한편, 도쿄에 대한 환멸 안에서 썼던 「권태」는, 「권태」라고 하는 근대의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유통된 한자어에 의해 텍스트 그 자체를 통제하여, 「現代人」적인 「自意識過剩」으로 끌려갈 수 없는 「倦怠의極」에 있어서 주체의 위기를 그려내었다.

성천이라는 농촌의 경험을 통해 더욱 드러나는 「都會」 또는 모던을 주시하면서, 일본어로 된 소재를 사용하여 조선어의 문체를 만들어내려는 이상 문학의 말의 움직임, 본 발표에서는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이상 자신의 이동과 연동하면서 씌어진 「산촌여정」과 「권태」라는 조선어 텍스트의 저변에는, 모던이라는 근대성과 일본어가 서로 뒤얽혀 나가면서 가로 놓여 있다. 창작 노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본어부터 조선어로의 고쳐쓰기는, 식민지하의 모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까를 모색해나가는 이상 문학 영위의 일단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4 같은 글, 128 쪽.